

2025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5.15. 14시30분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8/10	2	2	12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구종상, 최은수, 이경화, 김광석,
김병수, 안서연, 박세진, 임태순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 경영진 외 : 심의부장, 시청자센터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21	-	-	-	21	-	21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21	-	-	21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유튜브 채널 개선 사항, 유튜브 채널에서 현장연결, 속보, 일반 뉴스 썸네일의 글자색을 다르게 표현한 점이 효과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더 눈에 띄고,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좋은 클립은 '썸네이스'인데, 사람들의 관심을 잘 끄는 주제로 선택된 것 같습니다. 다만, 조회수를 목적으로 자주 업로드할 경우 '사이버렉카'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히 활성화하는 것이 유튜브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종상 위원장)	유튜브 채널은 저희가 본 채널 말고 서브 채널 '다큐디깅'을 런칭하였습니다. 자연·휴먼·시사·기업 등 각 분야의 엄선된 콘텐츠를 모았습니다. 또한 기존 유튜브 채널도 시청자가 보기 쉽게 관심을 끄는 카테고리별(대선 2025, 대권가도 등)로 분류하여 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25.4월 조치>	'25.4월
보도	출연자 이름의 정확성 확인 필요, 사람의 위치와 무관하게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 발견했습니다. 사람 이름 밑으로 이름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이름을 삭제하는 시간과 횟수도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특정인은 오랜기간 등장하고 또 다른 특정인은 금방 이름이 사라지는 것은 객관성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최은수 부위원장)	출연자 네임텍 위치 조정 이 부분은 안그래도 조금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람 이름이 엉뚱한 데 이렇게 겹쳐지지 않도록 조정을 했고 바로 시정했습니다. <25.4월 조치>	'25.4월
총 건수		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5. 01. 01.~ '25. 12. 31.)'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홍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심평변호사	-	18.7.1.~26.6.30
임윤주	1985.08.28	(현)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	21.11.01~25.10.31
안지연	1989.06.27	(현)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	23.02.01~27.01.31
최미연	1983.09.05	(현)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전임연구원		24.09.01~26.08.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5. 1. 1. ~ '25. 12. 31.)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구종상	현)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특임교수 전)MBN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언론 학술	
부위원장	최은수	현)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AI 석학교수 전)MBN 보도본부장	AI경영학회	경제	
위원	이경화	현)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전)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학부모정보감시단	학부모 단체	
위원	김광석	현)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교수 전)KBS 미래방송센터건설단장	한국방송학회	언론 학술	
위원	전계순	현)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전)한국소비자교육원 사무총장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 단체	
위원	김병수	현)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장 전)중소기업중앙회 공제마케팅실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단체	
위원	안서연	현)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동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단체	
위원	백명희	현)도담약국(김포) 대표 전)대구 파티마병원 약제과	대한약사회 경기도지부	과학기술 단체	
위원	박세진	현)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장 전)연합뉴스TV 시청자평가원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	문화 단체	
위원	임태순	현)중소벤처기업인증원 교육평가실장 전)중소벤처기업인증원 인증개발팀장	좋은변화	인권 단체	
변 동 사 항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유튜브 쇼츠 개선 사항, 유튜브 채널 쇼츠에서는 자막을 넣어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청각 장애인까지 장벽없이 뉴스를 즐길 수 있게 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메인 뉴스 쇼츠는 편집을 최소화해 방송 뉴스 화면의 타이틀과 쇼츠 자체의 타이틀, 심지어 자막까지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러한 텍스트 정보의 과도한 중첩은 시청자의 집중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방송 뉴스 화	말씀하신대로 쇼츠는 1분 미만짜리 잠깐 보고 지나가는 건데 사실은 영상 위주로 돼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영상에 어느 정도의 캡션 같은 걸로 좀 이해를 돕는 정도가 적절할 걸로 보는데 그 작은 쇼츠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하다 보면 좀 난잡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원래 화면에 이미 자막이 많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또 거기 밖에다가 또 자막을 입히고 하는 것은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면의 텍스트를 최소화하고 영상 중심으로 보이게 하여 쇼츠는 쇼츠 만의 기존 타이틀 자막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구종상 위원장)	좀 과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영상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편집하면서 영상 자체가 좀 더 두드러지게 영상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보도	이용자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SKT 유심 유출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보도를 이어가며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과 정부의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보도 흐름과 분위기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실제 경험과 불편을 조명하는 뉴스도 같이 다뤄진다면 보다 입체적이고 공감이 가는 뉴스가 될 것입니다.(구종상 위원장)	SKT 기사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이렇게 사람들 민생과 직결된 그런 것 들을 저희가 더 유의해서 열심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대선을 앞두고 중요 정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선제적으로 특보 편성을 통해 심층 보도와 전망을 내보내는데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정치 이슈들 특히 대선 이슈들이 굉장히 민감하니 좀 중립적 보도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중립적 보도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 균형까지 맞출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싱크를 쓰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싱크를 30초를 쓰고 또 김문수 후보 싱크를 20초 쓰고 그러면 또 이것도 이제 시비거리의 대상이니까 그런 어떤 물리적 균형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최은수 부위원장)	요즘은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계적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적 균형이 안 맞춰지면은, 내용이 아무리 충실하게 균형을 맞춘다고 그래도 큰 틀에서는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대선 공정보도에 물리적인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걸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간의 보도의 건수, 보도의 길이, 그리고 보도의 농도 이런 것까지 다 맞추고 지금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저희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영상들은 뭔가 공정하고 균형이 잡혀 있다라는 느낌을 주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보도	출연자 이름의 적확성 확인 필요, 사람의 위치와 무관하게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 발견했습니다. 사람 이름 밑으로 이름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이름을 삭제하는 시간과 횟수도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듯	출연자 네임텍 위치 조정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조금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람 이름이 영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입니다. 특정인은 오랜기간 등장하고 또 다른 특정인은 금방 이름이 사라지는 것은 객관성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최은수 부위원장)	똥한 데 이렇게 겹쳐지지 않도록 조정을 했고 바로잡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보도	[2025 대선 상황실] 편성 적절, 대선 후보들의 중요 일정과 동정, 뉴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주 잘된 기획이고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최은수 부위원장)	'2025 대선 상황실'이라는 코너는 저희가 한 50일 정도 남겨놓고 이제 시작한 코너인데 대선 상황을 하루하루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고 경험이 있는 차장급 정치부 기자 3명 정도가 대선 직전까지 돌아가면서 진행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이 코너만 봐도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 있도록 저희가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		
보도 *시청자 불만활용	스크롤 업데이트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뉴스 스크롤이 지나치게 정치 뉴스 중심의 스크롤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른 뉴스, 스포츠 경기 결과, 경제뉴스, 문화, 사회 뉴스 등도 반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최은수 부위원장)	스크롤은 저희가 스크롤을 담당하는 분이 2명이 있습니다. 기자 출신 외부위원 2명이 이제 하루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파트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요즘은 이제 뉴스가 정치 뉴스가 좀 많아져서 아마 그렇게 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거 유념해서 저희가 앞으로 스크롤 제작에 신경 쓰겠습니다.	○		
보도	<뉴스 오늘> 프로그램 '이시각 핫뉴스' 코너는 진행자가 터치화면에서 여러 기사중 설명하려는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 내용이 팝업으로 나오면서 기사 내용이 보여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클릭된 기사가 글자가 작아 가독하기에 불편하고 기사내용을 설명할 때 배경화면으로 다른 여러 기사 크고 작은 제목이 뒤에 있어 집중하기 어려움(이경화 위원)	데이터 내용들은 연합뉴스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직접 여기서 제작한 콘텐츠라기보다는 연합뉴스랑 연계된 콘텐츠인데,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기사 크기를 조정하거나 이런 거는 좀 힘들고, 또 이 뒤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화면을 저희가 여기서 편집하기는 좀 힘든 건데, 다만 이 기사를 클릭했을 때 가운데 기사가 이렇게 창이 뜨는데 이 기사 글자가 좀 작은 문제는 저희가 포인트 조정은 할 수 없지만 '줌인'을 통해서 기사를 크게 보이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오기 전에 PD에게 이거 클릭했을 때는 기사를 준비해서 좀 글자 크기를 키워서 보여달라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도	<p>〈뉴스 오늘〉 20대 청년 솟폼 과의존 심각하다는 보도(4.10). 솟폼 과의존 심각성을 지적한 기사로 전국민으로 확산되는 과의존 현실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보도는 솟폼이라는 형식의 과의존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경각심을 주기보다 식상하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이경화 위원)</p>	<p>솟폼 콘텐츠 과의존 문제 등은 경제부랑 사회부에서 단편적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들을 제가 꼭 읽어보니까 여기 지적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좋은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여서 현상만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다음에 뉴스프리즘 같은 데서 한번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p>	○		
보도	<p>13분 시간동안 방송에서 전문가 진단 등 종합적인 보도를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통해 '땅꺼짐 사고'에 대한 향후 정부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가 없었던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OECD선진국에서는 '땅꺼짐 사고'에 대해 사전 예방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사고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련 보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땅꺼짐 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법률을 개정하여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관리주체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p>	<p>지자체별로 땅 꺼짐 문제가 정부 중앙정부보다는 각 지자체의 관리 소관이라는 부분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좀 더 저희가 집중해 가지고 봤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은 어떻게 이런 사고에 대해서 개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 생각에는 땅꺼짐이라는 게 지금 정도에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고가 점점 더 비일비재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를 더 관심 갖고 저희 언론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김광석 위원)				
보도	[정신채린 삶의현장], "한번 오면 계속 오게 될걸?"...천사들과 매주 등산하는 사람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등산하면서 30년째 봉사하는 분과의 인터뷰는 상당히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은 이전에는 알리는 것 자체가 불편하였으나, 지금은 우리 사회가 보는 시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꼭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신채린 삶의현장에서 장애인의 날 특집편으로 저희가 발달장애인과 저희 안채린 씨가 같이 산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제작한 콘텐츠인데요. 저도 재미있게 잘 봤고 저희가 특히 일반 사기업도 아닌 공적인 더 갖춘 방송사로서 시청률이나 어떤 구독, 뷰클릭,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런 공적인 필요한 콘텐츠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김광석 위원) 최근 발생한 SKT 서버 해킹 사고 보도는 향후 연합뉴스 TV에서 사건 초지에서 마무리 단계까지 재구성,정리하여 보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SKT와 정부당국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발표하여야 할것입니다. 향후 보안시스템 강화 및 안전장치를 제대로 만들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통신사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전한 통신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전계순 위원)	SKT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매일 보도를 하고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 위약금 면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사태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		
보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젊은 노인' 딜레마에 빠진 한국... 노인 연령 올리나,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변하지 않았던 노인기준연령(만65세) 상향조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기준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김병수 위원)	'젊은 노인' 딜레마 그런 취지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잘 만들어진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안을 만들어내는 거는 언론뿐만이 아니라 또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내 발밑이 불안하다... 확산하는 '땅꺼짐' 공포, 싱	싱크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대응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크홀의 발생원인 및 대응방안도 중요하지만 사고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이 다뤄지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추후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당국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이 되어버린 싱크홀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김병수 위원)	굉장히 당연히 중요할 테니까 저희도 열심히 이쪽 부분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추가 보도, 연속 보도를 계속하는 게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싱크홀 문제에 관련해서 는 연합뉴스TV가 앞장서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뉴스썩]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베이징 '위장출근회사'에 관한 보도는 '위장출근회사'를 직접 촬영하여 보도한 것인지 또는 영상을 차용하여 보도한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위장출근회사'에서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보도하고 있는데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었고 중간에 직접 해당 '위장출근회사' 이용자를 인터뷰한 것이 있는데 해당 인터뷰이의 이름도 없고, 가십성 기사인지 신뢰성이 있는 기사인지 의문이었습니다.(안서연 위원)	이 기사는 두 건 다 배삼진 베이징특파원이 직접 썼는데 둘 다 사안 자체는 굉장히 눈길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일단은 위장취업 관련이 경우 이게 중국 내에 SNS에서 돌아다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인터뷰 나온 것도 중국 SNS에 떠 있던 거고요. 일반적으로 베이징에서 직접 쓸 때는 소스를 잘 노출을 안 하고 쓰는 게 일반적인 베이징특파원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SNS에 뭘 밝히지 않고 그냥 SNS 이렇게 출처 SNS에 해가지고 아주 멍뚱그러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인터뷰 대상이 누군지 밝힌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힘들고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고 우리 기자도 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베이징 기사가 조금 특별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보도	[뉴스썩] 교수의 시진핑 독재 비판 관련하여 굳이 '여교수' 라는 성별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안서연 위원)	베이징 특파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반체제 인사 중에 여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성이 했다는 게 조금 독특해서 '여교수'라고 했다고 '여'라는 거를 붙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유의해서 저희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다다를 인터뷰] 푸른 눈의 가야금 마스터..."한국의 귀한 유산 조세린입니다", 길지 않은 인터뷰 내용에 조세린 교수의 인생, 삶에 대한 철학, 한국 국악 및 가야금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었던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고양시를 일산시라 불렀더니 월급까고 울부짖은 뉴비 공무원, "참~나!" 욕 안 했는데 욕한 줄...'레전드 연기' 공무원의 속사정, 최근 유튜브 콘텐츠가 거의 산업화, 기업화 되어 있는데, 해당 유튜브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 기획하여 오히려 생동감을 주었습니다. 고양시와 서울의 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지방의 유튜브도 많이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안서연 위원)	'다다를 인터뷰'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순히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참신한 소재를 발굴해보겠습니다.	○		
보도	[기자들의 수다] 국민의힘 출입기자 와 더불어민주당 출입기자가 휴민트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언론의 분위기 등을 전해주어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사회자가 진행을 하고 국민의힘 출입기자와 더불어민주당 기자가 이에 대하여 대화를 하는 형식이 아닌, 사회자, 국민의힘 출입기자, 민주당 출입기자가 모두 진행을 하는 것이 산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출입기자가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를 한 이유를 묻는다던가 국민의힘 출입기자가 이재명 후보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기자들 간에 토론 및 의견을 나누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사실관계를 묻는 내용을 상호 간에 묻는 것이 진행자가 여럿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안서연 위원)	진행자가 주로 중간에서 하다가 갑자기 국민의힘 출입 기자가 민주당 출입 기자한테 뭘 물어보는데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팩트를 물어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보고 다음부터 진행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집중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보도	연휴에 트래블카드 인기 '쑥'...편의점서도 발급, 환전수수료 무료를 앞세운 트래블카드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황금연휴에 해외여행을 가는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용한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여행객들에게 적절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편의점이나 공항 등에서 트래블카드 발급이 당일 즉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연휴에 여행을 가지 않는 시청자들도 이 뉴스를 보고 기억해 두면 필요한 때에 카드발급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를 많이 발굴하여 보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백명희 위원)				
보도	재난 속보 자막, 5월5일 오전 7시 53분에 충남 태안군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와이드08에서 재난 속보 자막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뉴스 속보로도 몇 차례 방송되었는데 한글 방송이었습니다. 자막은 한글과 영어로 지진 발생에 대해 간단한 속보 자막으로 나왔는데 영어 이외에 타 언어 재난 속보 자막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거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중국어나 일본어 등으로 간단한 재난 속보 자막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백명희 위원)	저희 재난방송 속보 자막은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는 방통위 재난방송 규정에 따라서 리히터 규모 3.0 이상부터 자막이 자동으로 뜨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 4.0, 5.0 해서 흰색, 파란색, 빨간색 바탕 위에 한글과 영어로 재난 어느 지역 규모 몇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적해 주신 거는 중국어하고 일본어도 좀 해주면 어떨까요 그런 건데 일단은 방통위 규정에 따라서는 모든 방송사가 다 영어와 한글로만 된 게 이미 이 세팅돼 있는 틀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만 별도로 중국어, 일본어를 추가하는 부분은 예산이 필요한 문제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보도	[뉴스특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다시 판단해야", 지난 5월 1일 보도된 뉴스특보에서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 채널다운 실시간 보도 역량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보완할 점으로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앵커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패널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쪽 팔을 괴는 장면이 반복되었는데 보도전문채널의 공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보다 정제된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진행자의 어떤 자세나 태도 이런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중파에서 보면 베테랑 진행자들이 조금 이렇게 팔을 괴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저희는 사실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그래도 진행자에 따라서는 조금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를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다만 보도채널은 종편이나 공중파랑은 좀 달리 뉴스를 이렇게 드라이하게 전달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채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보도를 통해 연합뉴스TV의 전문성과 공정성, 전달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며, 이러한 수준 높은 생방송 보도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박세진 위원)</p>	<p>해서 진행자의 개성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그 부분을 저희가 유념해서 뉴스를 진행하는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p>			
<p>보도</p>	<p>SKT 비상경영 최고 단계..."시장 지위 하락할 수도, 이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보며, 보안 사고 하나가 얼마나 큰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통신사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통신 인프라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인 만큼, 그에 걸맞은 보안 수준과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깊이 있게 다뤄 준 연합뉴스TV의 보도는 국민에게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정확히 전달해 주었고, 관련 업계와 정부가 보다 빠르게 대응하도록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분석까지 담아낸 점에서 언론의 본분을 다한 모범적인 보도였습니다.(임태순 위원)</p>	<p>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KT 같은 문제는 민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중요하게 임했고요. 또 결과적으로 좋은 콘텐츠들도 많이 만들어져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p>	○		